

“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총력”

김관영 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수 있도록 행안부 사전조치 대응 철저하”

저출생 대응 TF 운영 내실화 당부, 여름철 식중독 예방·지도점검 등도 지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행정력을 집중해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의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완주와 익산 등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조사에 철저히 대응해 신속하게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앞으로의 호우에도 추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팀장이다. 도청 팀장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등 도정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청의 270개 팀 중 233개 팀을 자율팀제로 운영하도록 개선한다”며, “역동적인 도정을 만들기 위해서

을 해주기 바라는 취지에서 자율팀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팀장 중심의 자율팀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주 연달아 개최된 주요 행사와 관련해서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의회와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실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논의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생 대응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백화점식으로 많은 사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우리도의 특성을 담은 상징적인 사업들을 발굴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최근 남원 초·중·고에서 식중독이 집단 발생한 만큼, 기존 상층에 따른 식중독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 및 개인위생 수칙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김 지사는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등 정부의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소식지 ‘여름호’ 발간

제408·409회 임시회, 제410회 정례회 내용 수록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등 의정활동 포부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여름호(제87호)’를 발간했다. 제87호에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열린 제408회와 제409회 임시회, 제410회 정례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특히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포부가 담겼다.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은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늘 도민과 공감하고 매사에 공정하게 일해 공신력 높은 도민의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반기 의정활동 결산 내용도 정리됐다. 전반기 도의회는 집행부와 생산적 견제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소식지에는 2023년도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통해 세계 서예 비엔날레완 건립사업 전환 재검토, 동학농민혁명 관련 교육 기회 확대, 도 교육청의 일관된 유보통합 원칙 및 청렴도 제고,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파격적인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정책 시행과 지역·오픈인재 육성사업 개선, 교육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위기의 선제적 대응,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



극적인 정책 추진, 전북과학기술원 유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제·개정된 조례 55건과 건의·결의문 18건도 정리됐다.

포토에세이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부안 격포 채석장을 담았고, 특별 기고의 경우 ‘전세 사기, 실효적 대책 시급하다’는 주제로 전세 사기의 문제를 짚어냈다. 또 12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 맞춰 진행되는 ‘초성 퀴즈 이벤트’ 정보를 담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는 전반기 도의회를 되짚어 보고, 후반기 의장과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포부를 비롯한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담았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이 익산시 용동면의 수해지역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수해복구작업을 펼쳤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민·관, 호우 피해지역 찾아 복구 ‘구슬땀’

김관영 도지사·이오숙 소방본부장·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등 익산시 일손돕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의용소방대원 등이 휴일을 반납하고 이번 호우 피해 지역으로 달려가 빠른 수해복구를 위해 일손을 보탰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14일 오후 익산시 용동면 소재 수해지역에서 이오숙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전북소방노동조합 소방공무원, 도내 의용소방대원 등 150여명과 수해복구를 펼쳤다.

이날 이들은 비닐하우스 5개동에 심어졌다 침수된 멜론과 오이 등 농작물 제거 및 시설 정리작업 등 일손돕기에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김 지사는 봉사활동에 앞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온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지사는 “언제나 재해·재난현장에서 앞장서고 있는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해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자긍심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흘리는 이 땀방울도 우리 이웃이 수해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피해 지역은 빠르게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며, “또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사전 조사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일 기준 상가와 가정집 수해복구를 비롯해 급식지원 활동 등 대민지원에 자원봉사

자 663명(군산265명, 익산296명, 완주102명), 군인 685명(완주625명, 군산60명) 공무원 565명(군산228명, 익산299명, 완주38명) 등 모두 1,913명이 대민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장비는 소방차와 군 차량 등 291대(소방차 6대, 군차량 15대(응급차 6대, 급수차 4대, 승합차 4대, 굴삭기159대, 덤프40대, 실수차25대, 수중펌프46대)가 지원됐다.

침수피해지역 가전제품 합동 무상수리 지원도 완주지역 50세대에서 이뤄졌다. 이밖에 소방본부에서도 익산, 군산, 완주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공무원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도로 세척, 유실 토사 제거, 등 복구활동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이만호 기자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군산 성산면 산사태 현장 방문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2일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산사태 현장을 방문하고, 관계기관에 빠른 복구 등을 당부했다.

특히, 문 의장은 이날 현장을 찾은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사방벽 구축 등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산사태 둔덕리 산은 지난 10일 내린 집중 호우로 1ha에 달하는 토사가 산 아래 아파트를 덮쳐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무원 등이 동원돼 토사를 제거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전북자원봉사센터 봉사자와 군산시 자원봉사자 등도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문 의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힌 후, “이재민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책 마련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진형석 도의회 교육위원장 호우피해 학교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은 11일,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침수된 완주군 운주면 학교 현장을 돌며 피해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진형석 위원장은 운주면 소재 운주초등학교와 운주중학교 피해현장을 직접 살펴본 후 “앞으로도 장맛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복구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 제고”... 당원 민주주의 강화

민주 김운덕 사무총장, ‘당원주권법’ 대표발의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등 내용 포함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운덕(전주갑) 의원이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원들이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정당 민주주의가 약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김운덕 사무총장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원의 정의 및 당원의 권리·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 사무원 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운덕 사무총장은 “대의정치 제도 아래 정당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들의 정치의식 향상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당원의 당규 준수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과격한 인사모독·발언 및 가짜뉴스 등에 대한 당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정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당원 활동을 강화하는 지역당 신설과 정책연구소의 지역 정책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원주권의 시작은 당원들의 담성을 모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당원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넓히고, 대중정당,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12일 익산 호우 피해지역 응급 복구 현장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호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차관, 익산 호우 피해현장 방문

시에 “조속한 복구 힘써달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2일 시간당 100mm 가량의 극강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익산시를 방문해 호우 피해지역 응급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익산에는 평균 295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망성면은 10일 하루에만 231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누적 강수량 424mm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성당면 417mm △응포면 407mm △용안면 406mm △화랑면 405mm 등 강한 빗줄기가 북부권역을 강타했다.

해당 지역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고 제방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 차관은 이날 제방이 유실된 남산

면 산복천 상류를 찾아 응급 복구 상황을 살피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주민들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함라면 한옥 체험 단지를 추가로 방문해 주민을 위로하기도 했다.

이한경 차관은 이날 정현을 익산시 장에게 “익산시 강우 상황이 심각치 않아 걱정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대처를 잘 해주셔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에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여름 큰 수해로 아픔을 겪었던 지역이 또다시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최형열 도의원, 취임축하 화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

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의원이 취임 축하 화분 60여 개를 전달했다. 최형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로 많은 분들이 축하화분을 보내주셨는데, 다시 지역 사회에 보답하는 첫 걸음으로 나눔을 하게 됐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